

'문 전 대통령 사저 시위' 친누나 채용 맹폭

野 “이래서 방조했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고성·욕설 시위를 벌여온 유튜브 안정권의 친누나가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한 것을 맹성토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의 핵심은 욕설시위 유튜브의 친누나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가 아니라 이 같은 욕설시위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는지”라며 “윤석열 대통령실은 보복수사도 부족해 욕설 시위로 퇴임한 대통령을 괴롭혔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신 대변인은 “알고도 방조했다면 이는 묵인”이라며 “한 씨의 누나는

모든 것이 가시와 위선이었다는 뜻”이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저와 동료 의원들이 양산경찰서에 방문했을 때, 서장은 평상복을 앞 협오사위대에 대한 집시법 대응이 미흡함을 인정했었다”며 “하지만 이후에도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그 이유가 이것인가”라고 분개했다.

윤 의원은 “급속히 경직된 이 정부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그의 존재가 일선 경찰 입장에서 어떤 사인으로 받아들여졌느냐”며 “윤 대통령이 전 대통령 사저 앞 협오사

김남국 의원 역시 “땀땀하면 수사 받으려던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시절 발언처럼 정당하게 채용과정을 거쳤으면 담당하게 근무하면 된다”며 “인근보도가 나오자마자 안 씨가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하고 본인 채널에 영상을 삭제한 것을 보면 땀땀하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논란을 덮으려고 출혈량 차는 것으로는 국민을 속일 수 없다”고 했다.

정용기 의원은 “능력만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유튜브’의 누나의 어떤 ‘능력’을 보고 대통령실에 근무하게 한 것인가”라며 “민간인에게 배가도 없이 구분도 없이 대통령 1호기를 타게 하고 6촌의 친인척 대통령실 채용도 모자라 사적인연으로 대통령실에 채용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연좌제가 없기 때문에 누나는 동생은 별도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어쩐지 국민은 참 끼리끼리 해먹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시위를 벌여온 상 플랫플업체인 ‘벨라도’의 안정권씨 친누나 안모씨가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실 행정요원으로 채용됐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안씨는 ‘벨라도’에서 일하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선캠프에 합류해 유튜브 영상 편집 등을 담당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안씨는 대통령실에 사표를 제출했다. /뉴스

“대통령실이 배후였다... 알았으면 묵인”

“누가 추천해 채용했나... 여사가 인사권?”

“끼리끼리 해먹으니尹 지지율 떨어져”

안 씨와 유튜브 활동을 함께 해왔던 만큼 대통령실이 채용 과정에서 안 씨의 욕설 시위를 모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97세대 당권주자인 강홍식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코나리펀츠 직원, 외가 6촌 사위가 지인 아들, 이제 극우 유튜브의 가족까지, 대통령실의 내 식구 행기가 식 인사는 절망적”이라며 “국정 철화에 국민 통합이 없으니, 인사 참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당권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누나 안모씨가 안정권과 함께 출연하거나 아예 방송을 대신 진행한 적도 있는데, 이 사람이 무관하냐”며 “이런 사건의 채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5·18 기념사와 선거를 앞두고 국민 앞에 부르짖었던

위를 방관하는 것을 넘어, 독려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인민석 의원은 “안씨 누나의 사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누가 추천했고 어떤 경로와 근거로 채용됐는지 밝히시라”며 “제간에는 인사권을 대통령 아닌 부인(김건희 여사)이 휘두르고 있다는 소문으로 들끓고 있다. 이 사건이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의원 최측근인 박찬대 의원은 “해당 유튜브가 대통령실의 ‘홍보’를 담당하는 행정요원의 친동생인 것이 과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냐”며 “정말 윤석열 정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시위마저 방조하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뉴스

尹 지지율 30%대 초반

알앤씨 여론조사 결과

긍정 32.5% · 부정 63.5%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10%포인트 넘게 하락해 3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알앤씨는 뉴스핌 의뢰로 지난 9~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긍정)은 32.5%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 부정평가는 63.5%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10.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10.1%포인트 증가했다.

윤 대통령은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높았다. 특히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60세 이상에서도 긍정 44.8% 부정 50.1%로 부정평가가 과반을 넘었다. 40대와 50대에서는 부정평

가가 70%를 넘어서기도 했다.

지역별로 보면 보수 텃밭인 영남권에서도 부정평가가 더 높았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부정평가가 50.7%로 직전 조사(33.5%)에서 17.2%포인트 상승하며 조사 이래 처음으로 과반을 넘었다. 대구경북 지역 긍정평가는 47%에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는 상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면화(100%)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2.4%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0%다. /뉴스

민주, 지명직 최고위원에 ‘비수도권’ 안배

당 중앙위, 당헌 개정안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비수도권 인사들의 당 지도부(최고위원회) 입성을 제도적으로 안배하기 위해 당헌을 개정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사 중심으로 최고위원회가 꾸려져 전국 단위 민심의 흐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앙위는 이날 “중앙위원 총 54명 중 385명(71.3%)가 투표에 참여해 찬성은 365명(92.41%) 반대는 30명(7.59%)이었다”며 당헌 개정안 의결을 선포했다.

개정된 내용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최고위원회의 지위와 구성에 관한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전당대회 본 투표

에서는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를 반영한다. 이는 현행 대의원 45%, 국민 여론조사 10%였던 비율을 조정한 것이다.

눈에 띄는 것은 제26조 최고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부분이다. 여기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중 비수도권 당선자가 없는 경우 지명직 최고위원에 비수도권 인사를 우선 배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앞서 비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대 규칙안 개정 당시 ‘최고위원 선거 권역별 투표제 도입을 시도했던 것과 같은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당시 논란이 됐던 ‘최고위원 선거 권역별 투표제’에 대해 “지난 수년간 호남·충청·영남 출신 의원들이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

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민주당이 최고위원회가 수도권 인사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소위 ‘수도권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다음 총선을 앞두고 전국적 여론을 청취해야 할 지도부에 호남·충청·영남 출신의 원들이 진입하지 못하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예정된 8·28 전당대회에서 추진을 받은 후 적용된다. 적용되면 개정안에 담긴 내용대로 최고위원 선거에서 비수도권 인사가 당선되지 않았을 경우 당 대표 권한에 의한 지명직 최고위원 2명에 비수도권 인사를 우선 배려해 지명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 최고위는 당 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5명과 대표 권한으로 지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 등 9인으로 구성된다. /뉴스



윤수봉 전북도의회 의원이 13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찾아 관계자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유능한 민생정당 앞장”

민주 의산을 지역위 핵심당원 교육 성료

더불어민주당 익산시 지역위원회(위원장 한병도 국회의원·사진)가 지난 11~12일 양일간 핵심당원 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한병도 지역위원장과 소병홍 지역위 수석부위원장, 운영진·한정수 전북도의원, 유재구·김경진·김진규·오인선·한동연·김순덕·소길영·신용·정영미·양정민 익산시의원 등 지방의원 전원과 한병도 의원실 보좌진 전원이 참석했다.

지난 6.1 지방선거 이후 효율적인 지역위원회 운영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는, 민선 8기 도·시의원과 지역위원회 간 소통 및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익산시 발전 전략을 토론하며 유능한 민생정당으로의 발전을 다짐했다.

한병도 위원장은 “이번 교육은 지역위원회 간부와 도·시의원, 보좌진까지 한자리에 모여 익산 발전에 머리를 맞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민주당 익산시를 지역위원회는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